

【P5-16】

학교급식의 급식운영형태에 따른 조리 작업원과 배식 현황 조사

김숙희, 윤혜려[§], 유준희*, 송요숙**, 이정애***, 김우경****, 김주현*****, 이정숙****, 김미강****, 이화여자대학 식품영양학과,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 우석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부산교육대학 실과교육과***,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한국식품영양재단*****

현재 우리 나라의 학교급식의 운영형태는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구분되어지며, 초등학교의 99.3%가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중학교의 47.1%, 고등학교의 56.7%가 위탁운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직영급식은 자체조리 형태인 단독조리, 공동조리로, 위탁급식은 자체조리(교내조리)와 외부 운반조리(도시락)의 형태로 다시 세분화된다. 본 연구는 학교급식의 운영형태를 단독조리형, 공동조리형, 위탁교내조리형, 위탁외부조리형의 4가지 형태로 분류한 후 영양사 또는 급식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의 운영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4가지 급식형태로 분류된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상학교를 무작위로 표집하고 표집된 학교의 영양사 또는 급식담당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초등학교 73개교에서 직영운영 형태의 단독조리가 63.0%(46개교), 공동조리가 35.6%(26개교)로 대부분이었으나, 중학교에서는 위탁운영(위탁교내 15.8%, 위탁외부 28.9%)이 27개교, 단독조리 28.9%(11개교) 공동조리 26.3%(10개교), 고등학교에서는 위탁교내 27.7%(15개교) 위탁외부 29.6%(16개교), 단독조리 29.6%(16개교) 공동조리 13.0%(7개교)를 나타내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위탁운영 형태가 50%를 넘는 분포를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당번의 작업참여 정도는 단독조리와 공동조리교에서 나타났는데, 단독조리 초등학교에서 작업 참여형태는 전처리, 주조리, 배식과 세척 등의 모든 작업에 분포되었다. 종업원의 관리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저임금으로 인한 사기저하(30.9%)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숙련자의 부족(15.8)과 결근과 이직의 빈번함(10.9%)이 다음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식에서 배식장소로는 단독조리교와 위탁외부조리교는 교실배식이 2/3로 식당배식보다 많았고 공동조리교와 위탁교내조리교는 2/3가 식당배식이었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급식장소로는 단독조리교와 위탁외부조리교형에서는 50%이상의 학생이 교실로 응답한 반면 공동조리교와 위탁교내조리교형은 30%만이 교실을 희망하였고 50%정도는 식당배식을 희망하였다($p < 0.001$). 이는 교실배식을 해왔던 학생들은 주로 교실을 식당배식을 해왔던 학생은 식당을 희망한 것으로 여겨진다. 배식 형태는 중고교의 경우 식당배식이 우세하였으나 상당수 학교에서 교실배식도 행하여지고 있었으며, 4가지 운영형태 모두 배식 담당자로서 학생이 참여하는율이 10% ~ 61.5%까지 나타났다. 배식의 이러한 양상은 학생들의 운반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과 적은 배식의 어려움, 그리고 정갈하지 못한 형태와 부적당한 양의 배분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며 이는 학생들이 지적하는 음식 맛의 불만과도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리설비와 효율성에서 위탁운영이 직영운영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작업원들의 근무환경과 생산성, 그리고 완성된 음식 품질의 만족도와도 연관성을 가지며, 작업원들의 근무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